

## 독일 현대미술관 연구

A study of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Germany

유재길

### I. 서론

### II. 독일 현대미술관

#### 1. 베를린(Berlin) :

- 1) 신 국립미술관(Neue Nationalgalerie)
- 2) 함부르크반호프 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 3) 바우하우스 아키브 미술관(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 기타

#### 2. 뮌헨(München) :

- 1) 모던 피나코텍(Pinakothek der Moderne)
- 2) 하우스 데어 쿤스트(Haus der Kunst)
- 3) 렌바흐하우스와 쿤스트바우(Städtische Galerie im Lenbachhaus und Kunstbau)

#### 3. 독일 서부지역 현대미술관 :

- 1) 뒤셀도르프의 K20, K21미술관(Kunstsammlung N-Westfalen K20, K21)
- 2)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Frankfurt Museum für Moderne Kunst)
- 3) 쾰른 루드비히 미술관(Köln Museum Ludwig)

### III. 결론

## I. 서론

미술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 목적에 의해 국제박물관협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가 규정하는 미술관은 “문화재와 자연재의 보호, 교육 그리고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인류의 대표적 유산을 수집, 보존, 전달 및 전시를 행하는 사회적 기관”<sup>1)</sup>이라고 명시한다. 이러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오늘날 시대와 장소, 각국의 특성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현대미술관 가운데 독일은 타의 모범이 되는 독특한 미술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중요 도시 가운데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관 역사와 소장품을 바탕으로 특성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과 제2도시 뮌헨, 그리고 라인강의 기적으로 경제부흥의 중심지인 뒤셀도르프와 쾰른, 프랑크푸르트 등 서부 독일의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과거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새로운 미술관 개념과 역할을 가장 먼저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경제적 발전으로 미술관 투자와 작가 지원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지역적 특성은 물론 국가적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이다.

독일의 현대미술관은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으로 새로운 미술문화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미술관들은 단순히 미술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하는 일차적 목적에 만족하지 않는다. 예술에 있어서 국가적 목표를 생각하며, 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미술관은 여가선용은 물론 시민 교육의 현장이 되며, 새로운 미술문화를 만드는 산실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독일 현대미술관은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전달, 전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술문화의 국가적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중요 기관으로 변신한다. 대부분의 독일 현대미술관은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작가와 작품을 수집하고 점검하며, 실험적 활동을 받쳐주고 있다. 좋은 예로 2차 대전 이후 패전 국가로 독일은 다른 분야보다 문화예술에 투자를 많이 한다. 1955년 카셀의 국제적 규모의 <도큐멘타 전시>를 비롯하여 각 도시마다 미술관 건립이 이루어지면서, 현대미술의 흐름

1) 국제박물관협회 제1조 1항, 제2조 1항에는 인류와 인류환경의 물적 증거를 연구, 교육, 향유를 목적으로 이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및 전시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사회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 ICOM 국제박물관협회 전문직 윤리강령 참조

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독일 현대미술관 연구로 세계적 작가로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미술관이라는 독일의 중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독일 통일 이후의 변화된 베를린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뮌헨과 서부 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곳은 국가적 목표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아울러 미술관 교육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전시기획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술관 역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현대미술관 운영을 생각해 본다.

## II. 독일 현대미술관

유럽의 박물관, 미술관 역사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다. 1753년 영국 의회에서 대영박물관 건립을 입법화시키고, 곧이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루브르 미술관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시작한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독일의 경우도 19세기 초반인 1828년 베를린의 국립 박물관과 뮌헨의 피나코텍이 만들어진다. 이들 박물관과 미술관은 이제 특정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적 보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예술품으로 자리 잡아 나간다. 아울러 19세기 초창기에는 자국의 이익에 치중한 내셔널리즘으로 제3세계의 예술품을 강제로 약탈하거나 소장하여 국가 재산을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의 현대미술관 역시 내셔널리즘과 제국주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된다. 20세기 초 베를린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일 현대미술관은 연방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일반 대중의 교육과 소장품 연구보다 국가 소유의 재산 증식에 치중하게 된다. 미술관 후원자도 군주나 귀족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하며, 미술관 활용을 국가의 정치적 목표에 맞추기도 한다.

1920년대 독일은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고 바우하우스<sup>2)</sup>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국가에서 필요한 전시기획(museography)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

2) Elodie Vitale, *Le Bauhaus de Weimar, 1919~1925*, Ed., P. Mardaga, Bruxelles, p. 48~50 : 1919년 바우하우스 선언으로 미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기초 교육 내용으로 1) 제작 매뉴얼과 재료, 2) 대상, 형태와 색채, 3)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미술을 강조한다.

행된다. 독일 현대미술관의 특징은 초창기 바우하우스처럼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지방 정부와 국가가 주도한 미술관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변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 데르 로이의 건축으로 유명한 투명 유리의 베를린 국립미술관이다. 빠른 시간 안에 작품 이동과 전시 기능을 갖춘 베를린 국립미술관은 순수 미술품의 소장과 전시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위한 장소로 변질된다. 나치에 의해 1930년대 전시된 <퇴폐미술전>은 유명한 사례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 현대미술관은 미술의 정치적 도구화가 아닌 국민과 지역 시민을 위한 독특한 개념의 미술관으로 변화한다. 일반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며, 자기표현과 성장의 열린 공간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과거처럼 미술관이 유물전시와 내셔널리즘의 정치적 무대가 아닌 개개인의 삶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 1. 베를린(Berlin)

### 1) 신 국립미술관(Neue Nationalgalerie)

1876년 개관된 베를린 국립미술관은 2차 대전 이후와 1989년 독일 통일로 재편성되면서 근대미술 중심의 국립미술관과 현대미술 중심의 신 국립미술관, 기차역을 개조한 베를린 함부르크 반 호프 미술관으로 분리된다. 베를린 국립미술관은 1930년대 나치에 의해 현대미술의 거장들 작품들이 퇴폐미술이라는 구실로 500여점 몰수당하는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곳이 1945년 베를린 의회에 의해 <20세기 갤러리>로 변신하고, 1959년 신 국립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오늘날 신 국립미술관 건축은 1968년 완공된 것으로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반 데어 로에(van der Rohe)에 의해 복합 문화공간(Kulturforum)<sup>3)</sup>으로 만들어진 미술관이다. 당시 대부분 미술관이 신고전주의 외관으로 건립되던 시절,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현대적 미술관 건축으로 완성된 수작으로 평가된다. 베를린 신 국립미술관은 각국의 현대 미술관 본보기가 되는 현대적 건축 양식과 더불어 최고의 독일현대미술 컬렉션을 자랑한다.<sup>4)</sup>

신 국립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으로는 피카소, 뭉크, 파이닝거, 오토 딕스 그리고

3) 현재 4개의 복합 미술관, 박물관(Gemäldegalerie, Kupferstichkabinett, Kunstbibliothek, Kunstgewerbemuseum)이 모여 문화포럼을 형성하고 있다.

코코슈카 등의 작가를 포함한 고전적 모더니즘(classical Modernism)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유럽 회화와 조각들이다. 그중에서도 키르히너, 헤켈, 그리고 놀데의 작품을 포함한 독일표현주의파의 컬렉션은 독일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다른 주요 작품으로는 막스 벡크만 작품으로 1906년에서 1942년에 제작된 11점의 회화들과 에른스트, 달리, 미로의 초현실주의 작품이 주목된다. 그리고 뉴먼이나, 스텔라와 켈리의 60~70년대의 색면 추상회화도 소장하고 있다.

신 국립미술관은 대규모 기획전으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한다. 그 가운데 2004년 〈뉴욕 모마 특별전(Das MoMA in Berlin)〉은 20세기 현대미술을 정리하는 기념비적 전시이다. 이러한 기획전으로 시민들은 난해한 현대미술을 미술사적으로 쉽게 접근해 보게 된다. 전시된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 세잔 작품부터 반 고흐, 피카소와 마티스 등 널리 알려진 20세기 초기 거장들과 폴록과 뉴먼, 잰스퍼 존스, 리히텐슈타인, 워홀, 올덴버그 등 미국 작가들이다.<sup>5)</sup>

한편, 베를린 신 국립미술관 전시 공간은 수평의 지붕과 사방으로 탁 트인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수직의 커다란 유리벽이 날카로운 대비를 이루고 있다. 곧은 선, 세련된 비례와 섬세한 디테일이 정밀감과 동시에 개방감을 주면서 현대미술 걸작품들의 가치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이곳은 “유리로 된 빛의 사원”이라 불리는 전시공간이다. 2층 건물인 신 국립미술관은 언덕위에 있는데다 2층으로만 출입을 하기 때문에 지하층이 감추어져 있어 한개 층 건물로 보인다. 독특한 분위기의 전시장 내부 공간은 자유롭게 흐르는 우주 공간처럼 부유하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이다. 외부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여기서도 걸치레 없는 게르만족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 2)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1847년 후기 고전 양식으로 세워진 3층 규모의 이 건물은 1884년까지는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로 가던 기차역이었다. 그 후 1906년까지는 교통과 건축 박물관으로

4) Neue Nationalgalerie, 〈History〉, 《Brochure of Neue Nationalgalerie》, Neue Nationalgalerie, 2004. 참조

5) John Elderfield, 《MoMA in Berlin—Masterpieces from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Hatje Cantz Verlag 2004, pp. 8~11. 참조

사용되다가 1945년 전쟁으로 파괴되어 그 기능을 잃었다. 베를린 탄생 750주기가 되는 1987년 축제의 일환으로 건물의 일부를 재건하여 시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이듬해에 '시대정신'이라는 대규모 현대 미술전을 이곳에서 열어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베를린 시는 이곳을 현대 미술관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여 1996년 기존 건물을 개축하고 양측 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지금의 미술관이 되었다.

초기에 이곳 소장품은 위홀의 60여점 판화와 요셉 보이스의 450여 점 드로잉을 비롯하여 라우션버그, 리히텐슈타인, 키퍼 등의 높은 수준의 작품과 베를린 국립미술관으로부터 이관된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이스에게는 큰 규모의 개인 전시실을 할당해 놓고 있다. 이어서 엔조 쿠치와 플라빈, 저드, 모리스, 리처드 롱, 세라, 안드레, 제프 쿤즈 등 이탈리아, 미국, 독일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영국의 YBA작가들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는데, 퀸(Marc Quinn)과 허스트(Damien Hirst)의 대표적 작품을 소개한다. 소장품 중 허스트 작품 〈The Void, 2000〉가 있다. 거울을 벽면으로 한 유리상자안에 모두 다르게 생긴 수천개의 알약을 거울 앞에 촘촘히 배열해놓은 설치 미술이다. The Void 는 불교에서 지칭하는 공(空)의 의미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해석에 따라서 자그마한 수 천 개의 다른 모양을 가진 알약은 현세의 개개인의 인간을 뜻하고, 거울을 통해 관람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춤으로써 그 알약은 바로 당신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2000년대 이후 기획전은 사진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베허 부부와 구르스키 등 세계적 작가로 성장한 이들의 배경에는 베를린 현대미술관의 역할이 컸다. 독창적 주제와 표현으로 사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들 사진작품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소개하면서 세계적 작가로 만들어 나간 것이다. 이번 전시된 작품에서 주목된 것은 기획 사진이다. 이는 사람들을 스냅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계획 아래 등장인물의 위치와 포즈 등을 연출하여 작업한다. 시바크롬(Crystal Print)을 이용하여 깨끗한 색감과 풍부한 계조를 맛 볼 수 있으며, 8x10필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키보다 크게 인화하였음에도 선명한 해상력을 유지하고 있다.<sup>6)</sup>

6) Hamburger Bahnhof Museum, 〈Pergamonmuseum〉, 《Brochure of Hamburger Bahnhof Museum》, Hamburger Bahnhof Museum, 2004. 참조

### 3) 바우하우스-아키브 미술관(Bauhaus-Archiv Museum)과 베를린 구겐하임, 베를린 장벽미술관

1919년 4월 1차 대전 패배 후 발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건립된 바우하우스는 “모든 조형예술의 궁극적 목표는 건축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건축가, 조각가, 화가를 중심으로 미래의 조형예술 교육을 강조한다.<sup>7)</sup> 바우하우스는 처음 바이마르(Weimar)에 세워지고, 후에는 뉘른베르크, 베를린, 그리고 미국 시카고 등으로 옮겨 나간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구현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신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어울려 크게 주목을 받았다.<sup>8)</sup>

클레, 칸딘스키, 이텐(Itten), 파이닝거 등 표현주의 경향을 가진 작가들이 바우하우스를 통해 조형예술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으나, 나치스에 의해 탄압을 받아 1932년 베를린으로 옮겼다가 1933년에 폐쇄되었다. 폐교 후 바우하우스의 정신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현대 조형예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바우하우스-아키브 미술관〉은 바우하우스의 정신과 전통을 잇고 그 활동의 결과물을 정리하기 위해 계획하고 설계하여 1976~1979년에 베를린에 설립된 교육적 성격의 미술관이다. 창립자인 그로피우스와 칸딘스키, 브로이어(Breuer)의 각종 예술론 원고와 세미나 자료, 그리고 이텐이나 클레 등 당시 교수로 활동했던 작가들의 실습 자료와 작품들이 있다. 내용은 가구, 금속, 직물, 도자기, 사진, 건축, 회화, 디자인, 그래픽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1920년대의 바우하우스의 작품들과 관련된 19세기의 선구자들의 수집품들과 바우하우스의 계승자인 1937년에 설립된 시카고의 뉴 바우하우스 그리고 독일 서남부 울름조형학교(the Hochschule für Gestaltung Ulm, 1953~68)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다.<sup>9)</sup>

기타 베를린 지역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미술관으로는 독일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베를린장벽미술관(East Side Gallery)이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 명칭은 독일은행과 구겐하임재단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은행과 미술관의 독특한 결합이

7) Elodie Vitale, 앞의 책, p. 48.

8) 위의 책, p. 31, pp. 69~85. : 미술학교 바우하우스의 목표는 당시 현대미술관의 목표와 일치되는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삶의 예술을 지향하게 된다. 특히, 아틀리에(ateliers)작업에서 염색, 도자, 판화 등 생활에 필요한 공예 교육의 강조부터 시작된다.

9) Bauhaus-Archiv Museum, 〈Collections〉, 《Brochure of Bauhaus-Archiv Museum》, Bauhaus-Archiv Museum, 2004. 참조

다. 1870년에 설립된 독일은행은 상업적, 사회적 책무의 한 방편으로써 문화에 투자한다. “Art at Work”라는 독일은행의 모토에 따라 이러한 책임의 양상의 하나로써 1979년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단일회사로는 가장 큰 규모의 컬렉션을 가지며, 오늘날에는 5만점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수집품은 현대회화에 집중된다.

1937년에 설립된 구겐하임재단은 비구상예술에 초점을 둔 솔로몬 구겐하임은 개인 수집품에 기초를 둔다. 오늘날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달팽이 모양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부터 베니스의 페기구겐하임미술관, 그리고 빌바오 구겐하임, 라스베가스와 지금 소개하는 독일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다.<sup>10)</sup> 주요 소장품으로는 20세기 초 콜비츠의 비판적 리얼리즘과 표현주의 작품부터 오늘날 베허 부부와 안드레 구르스키에 이르는 독일 대표적 사진작품이 중심된다.

한편, 베를린장벽미술관은(East Side Gallery)은 열린 미술관으로 1990년 통일이 된 후 베를린 장벽(1.3Km)에 세워진다. 장벽 미술관은 동, 서독작가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작가들을 초청해 벽화를 그리게 하여 100여개가 넘는 거대한 작품을 가진 열린 공간의 장벽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후 관광객들의 낙서와 비, 바람 등의 자연풍화작용으로 대부분의 작품이 훼손되었으며, 그중에는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작품들도 상당수 있었다. 2004년 8월 현재 작품들은 2000년 6월에 새로 복구를 한 상태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다. 훼손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East Side Gallery의 홈페이지에는 1990년 제작당시와 1999년 남겨진 이미지들을 각각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sup>11)</sup>

## 2. 뮌헨 (München)

독일의 제2도시 뮌헨은 남부 지방의 특성을 담은 예술의 중심 도시이다. 이곳은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전통의 고전주의 성격이 강

10)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History>, 《Brochure of Deutsche Guggenheim》,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2004. 참조

11) [인터넷] East Side Gallery, <History of the East Side Gallery>, 《URL: <http://www.eastsidegallery.com/historyesg.htm>》 참조 (업데이트일자 : 2002. 참조일자 : 2004. 10)



하다. 독일의 북부와 서부 신흥 도시와 달리 유럽 전통예술을 고집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에도 시대적 변화와 정신을 담은 현대미술관이 등장하여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과거의 전통을 살리면서 새로운 미술을 수용하고 발전시킨다는 변화가 뮌헨의 현대미술관이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미술전시뿐만 아니라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이나 행위 예술, 토론과 강연 등의 장소로 미술관을 개방하여 지역 사회의 살아 있는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 이용된다.

### 1) 모던 피나코텍(Pinakothek der Moderne)

피나코텍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회화 수집관이란 뜻으로, 고대 그리스 신전의 봉헌화를 보존한 곳이다. 뮌헨의 피나코텍 미술관은 알테 피나코텍(Alte Pinakothek), 노이에 피나코텍(Neue Pinakothek), 모던 피나코텍이 있으며 서로 인접해 있다. 알테 피나코텍은 1836년 설립되었으며, 2차대전 폭격으로 반쯤 파괴되었으나 1952~1957년 복구시킨다. 소장품은 독일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고전적 유럽 회화를 갖춘다. 그리고 노이에 피나코텍은 알테 피나코텍 이후의 근대화 중심의 미술관이다.

현대미술관인 모던 피나코텍은 2002년 9월 16일에 개관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 미술관이다. 12,000㎡ 넓이의 모던 피나코텍은 4개의 장르별 전시공간으로 미술의 종합적 성격을 갖는다. 4개의 분류는 (1) 미술, (2) 디자인, (3) 건축, (4) 종이 작업 전시관이다. 스테판 브라운펠(Braunfels)에 의해 설계된 모던 피나코텍은 전시관의 상호연결을 중요시한다. 관람객들은 파리 퐁피두센터나 런던의 테이트모던과 같은 규모의 현대적 미술관에서 회화, 조각, 설치, 비디오, 사진, 건축 그리고 판화와 디자인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각예술을 접할 수 있다.

#### (1) 미술(ART)

모던 피나코텍의 핵심 부분으로 2002년 개관되었다. 하우스 데어 쿤스트에서 옮겨온 현대미술의 거장들 작품으로 '미술' 분야는 2층에 위치한다. 20세기 초반 주요한 아방가르드 운동들부터 198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동등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서 관객은 현대미술의 중추적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미술에서 개념의 확장과 이를 다룬 대표적 작가들

과 동시대의 상반된 경향이나 양식까지 볼 수 있다.

## (2) 종이작업(WORKS ON PAPER)

국립 그래픽미술관 후신으로 동판 인쇄, 판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미술관이다. 판화와 종이작품 등 인쇄미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15세기 이후 수집된 국립박물관의 판화와 인쇄물, 종이 작품 등이 모던 피나코텍으로 이관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 (3) 건축(ARCHITECTURE)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분야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뮌헨기술대학의 건축박물관을 옮겨온 것이다. 건축 전시관은 독일 건축의 역사와 교육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며, 주요 컬렉션은 19~20세기 독일건축이다. 소장된 대표적 설계 작품으로는 노이만(Neumann), 피셔(Fischer), 클렌체(Klenze), 멘델존(Mendelsohn),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베니슈(Behnisch)와 줌토어(Zumthor)의 작품 등이 있다.

## (4) 디자인(DESIGN)

모던 피타코텍은 현대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세계적 규모의 디자인 미술 전시관을 만든다. 소장품은 1907년 독일공예가연맹의 설립으로 모이기 시작한 가구와 생활 용기의 디자인 작품을 비롯하여 1925년 이후 국립미술관에 보존된 산업 디자인 작품이 기초를 이룬다. 이후 자동차 디자인을 비롯한 현대 첨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12)</sup>

## 2) 하우스 데어 쿤스트(Haus der Kunst)

뮌헨의 피나코텍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하우스 데어 쿤스트는 옛 바이에른공국 이래의 국가 차원의 소장품을 보관한 곳으로 현대미술 소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의 사진 등 실험적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하고 있다. 'Haus der Kunst'란 '예술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 기원은 1853~1854년에 걸쳐 산업 박람회장에 설립한 식물원이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이 건물은 1900년 이후 70여 년 동안 순수미술을 위한 주요 전시관으로 바뀐다. 이곳에서 열린 청기사파 전시와

12) Pinakothek der Moderne, <Collection>, 《Brochure of Pinakothek der Moderne》, Pinakothek der Moderne, 2002 카탈로그.

같은 전위적 미술전시는 당시 뮌헨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현재의 건물은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 예술의 집'을 지을 것을 지시하여 건축이 시작된다. 1937년 건물이 완성된 후 히틀러는 이곳에서 '위대한 독일 예술전'을 해마다 개최하는 등 이곳을 나치의 선전 장소로 이용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건물은 잠시 미군의 군정청으로 쓰이다가 독일 정부에 이관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다. 1948년에는 미술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쪽에 회화관을 두고 전쟁 중에 봉괴된 뮌헨의 여러 미술관에서 옮겨온 작품들을 보관하게 된다.

1980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이곳에 설치하였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활동의 중심지였고, 지방자치정부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지방 미술가 연맹 전시회를 비롯하여 국제적 전시회를 주관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세계 문화와 현대 미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시는 주로 20세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들과 공예를 비롯한 디자인 등 현대적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시였다. 당시 소장된 작품은 2002년 9월에 오픈한 모던 피나코텍으로 대부분 이전된다.<sup>13)</sup>

최근 하우스데어 쿤스트 특별전시에서는 독일현대 사진전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독일 현대사진은 베허 부부 사진작품처럼 지속성을 가진 프로젝트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산업 건축물을 객관적 시선으로 담아내거나 산업화의 이미지를 극사실적 기법으로 보여준다. 공장과 슈퍼마켓, 탄광지대의 산업 건축물 등 이들 사진 작품은 산업화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재현을 넘어선 시대의 증언으로 나타난다. 객관적 시각을 렌즈에 담은 흑백 풍경은 20세기를 규정짓는 보편적 환경을 주제로 한다. 아울러 이곳 사진 전시는 독일 현대사진의 아버지인 아우구스트 산더(August Sander)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독일사진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는 베허 부부의 작품을 비롯하여, 베허 스쿨의 후계자인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토마스 루프, 토마스 스트루스 등 현재 세계적 작가로 주목받는 독일작가 중심으로 기획된다.<sup>14)</sup>

13) Haus der Kunst, 〈Dispersion room〉, 《Brochure of Haus der Kunst》, Haus der Kunst, 2004 카탈로그.

14) Haus der Kunst, 〈b&h becher〉, 《Brochure of Haus der Kunst》, Haus der Kunst, 2004.

### 3) 렌바흐 하우스와 쿤스트바우 갤러리 (Städtische Galerie im Lenbachhaus und Kunstbau)

렌바흐하우스는 뮌헨 출신 화가 프란츠 폰 렌바흐가 1887부터 1891년에 걸쳐 예술가들을 위한 빌라로 이용한 갤러리이다. 고성 형태의 로마식 2층 건물에 정원과 분수, 층계와 기둥, 테라코타 항아리 장식으로 유명하다. 이곳이 현대미술관으로 바뀐 것은 1957년이다. 당시 칸딘스키 부인이었던 화가 뮌터(Gabriele Münter)가 칸딘스키 작품을 상설 전시하면서 현대미술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칸딘스키를 비롯한 아블렌스키, 마케, 마르크, 클레 등 청기사 그룹의 작품이 미술관에 기증되고, 뮌헨예술대학교 출신 작가들 작품이 첨가된다. 1994년에는 미술관에서 120m 떨어진 뤼니히스플라츠 광장역(U-Bahn station)에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sup>15)</sup>

렌바흐하우스는 무엇보다도 칸딘스키와 클레, 마크, 마케 등 “청기사파”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특히 청기사파의 주도자인 칸딘스키의 작품은 유화만 90여점이 넘는다. 그리고 작품뿐만 아니라 청기사파 작가들의 개인공간을 원래대로 복원시켜 놓은 전시실도 있다. 그 전시실은 그 시대의 장식,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놓아서,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또한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위한 전시실이 따로 있으며, 요셉 보이슬를 비롯한 개념미술가들의 미술사적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정치, 사회적 풍자 작가로 잘 알려진 시그마 폴케 등 ‘Spur’ 그룹의 작품을 중심으로 독일 개념미술가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면서 21세기 독일 현대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sup>16)</sup>

## 3. 독일 서부지역 현대미술관

### 1) 뒤셀도르프의 K20, K21 미술관(Kunstsammlung N-Westfalen K20, K2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미술관의 역사는 1960년에 주 정부가 미국의 개인 수집가였던 데이비드 톰슨으로부터 당시 뒤셀도르프 예술원의 교수였던 클레의 작품을

---

15) Lenbachhaus und Kunstbau, 〈History〉, 《Brochure of Lenbachhaus》, Lenbachhaus und Kunstbau, 2004. 참조

16) Lenbachhaus und Kunstbau, 〈Collections〉, 《Brochure of Lenbachhaus》, Lenbachhaus und Kunstbau, 2004. 참조

비롯한 88점의 회화와 데생을 구입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정부는 지역적 문화활동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초기에는 야수파와 표현주의, 입체파 등 21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소장품이 점차 늘어나자 예거호프성의 한정된 공간 때문에 새 전시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75년에 국내외 건축가들의 경쟁을 거쳐 뽑힌 덴마크의 두 건축가 디싱(Dissing)과 바이틀링(Weitling)이 설계한 미술관이 1986년 개관된다. 이 건물이 바로 지금의 K20이다. 3개 층의 상설전시장과 기획전을 위한 총 3200㎡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sup>17)</sup>

40여년 동안 K20은 20세기 현대미술의 중심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수한 컬렉션 미술관으로 알려진다. K20의 강점은 서유럽 현대미술과 미국의 모더니즘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비교해 보여준다. 20세기 초 현대미술의 시작으로 마티스를 비롯하여 프랑스 야수파, 입체파의 피카소, 조르쥬 브라크, 후앙 그리의 주요 작품들, 신조형주의 추상으로 몬드리안과 엘 리씨츠키 대표작이 전시된다. 또한 K20의 폴 클레 컬렉션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데, 전 생애에 걸쳐 제작된 100여점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sup>18)</sup>

독일의 주요 현대미술관들은 20세기 초반의 독일 표현주의의 작품들을 빠짐없이 소장하고 있는데 뒤셀도르프의 K20 미술관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베크만의 대표작인 <밤(Die Nacht)>은 이곳이 자랑하고 있는 독일 현대회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살인과 강간, 유괴와 같은 육체에 대한 폭력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인데 비좁고 비틀린 공간에서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그리고 있어 매우 역동적이다. 작가가 체험한 개인적인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세계대전 후의 정치적, 사회적인 격변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공포를 거치고 난 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인간존재의 희망 없음에 대한 개인적인 항거의 표현이다.

뒤셀도르프의 K21(Kunst 21) 미술관은 K20의 연장으로 2002년 4월에 개관한 미술관이다. 소장 작품을 보면 K20이 1900년부터 1980년대까지 소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K21이 담당하고 있다. 짧은 역사 때문에 소장품이 적어 상

17) 장효정, 김성희, 김신우, 이해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미술관>, 《유럽 미술관·박물관 2》, 김영사, 2000, p. 281. 참조

18)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K20 Kunstsammlung am Grabbeplatz>, 《Brochure of K20, K21》,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2004. 참조

설전시품의 상당수를 임대하거나 특별 기획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의 새로운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현대예술의 발전을 생각하게 한다.<sup>19)</sup>

K21은 모더니즘 이후 새로운 아방가르드 개념들로 무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자유롭고 실험적인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현대미술의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며, 새로운 '회화'(picture)에 대한 수용을 강조한다. 현재 이곳에서 강조하는 시각예술은 설치미술이라는 공간예술에 가장 주목하며, 아울러 사진과 영화 등 동영상 중심의 미디어 아트이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재건축된 K21 미술관처럼 전시장 공간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어 변모한다. 새로운 장르와 작가들을 K21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환상적 미술관이라고 말하는 K21은 매우 실험적이고 역동적 모습이다. 이곳의 전시는 아방가르드를 뛰어넘는 작품들로 혼란스럽다. 그러나 기획자는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시 공간을 개발하며, 관객과 호흡을 같이한다. 호수를 낀 공원 안에 위치한 K21 미술관은 경치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뒤셀도르프 시민을 끌어들이고 실험적 작품을 감상하게 한다. 특히, 특수 공법으로 재건축된 지하 전시장은 호수의 수면 아래와 위가 보이는 특이한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다. 관객은 공원에서의 철새와 다람쥐, 그리고 물 속의 물고기를 보면서 동시에 가장 최근의 실험적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것이다.

## 2)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

프랑크푸르트현대미술관(MMK)은 칼 슈트뢰허(Karl Ströher)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만든 현대미술관이다. 1977년 슈트뢰허가 죽으면서 그가 수집한 1960년대 미국과 유럽 작가의 작품을 시에 기증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의 중심가에 현대미술관을 세우게 된다. 미술관은 1983년의 건축설계 공모과정을 거쳐,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한스 홀라인(Hans Hollein)의 설계로 1991년 5월 7일 개관한다.<sup>20)</sup>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은 세계 경제 중심의 도시답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19)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K21 Kunstsammlung im Ständehaus>, 《Brochure of K20, K21》,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2004. 참조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변화한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미술관을 시민들은 백화점을 나들이 하듯 방문할 수 있다. 새롭게 건축된 이 미술관은 케익을 삼각형으로 잘라 놓은 모양이어서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케이크조각”이라는 뜻의 토르텐 슈틱(Tortenstück)라는 별칭을 얻었다. 또한 ‘포스트모던미술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삼각형의 꼭지 부분인 입구의 장식적 액센트와 매우 절제된 내부 공간이 특이하다. 실내는 화려한 장식을 거부하며, 백색의 간결함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삼각형의 외부 형태와 내부의 간결함이 포스트모던 작품을 전시하면서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특이한 것은 전시장의 채광과 구조이다. 서로 다른 크기와 높이를 갖는 전시장은 기존의 사각형에서 벗어나 원형과 삼각형, 사다리꼴 등 불규칙한 형태로 다른 미술관과 차별화를 이룬다. 이곳은 미술관 입구부터 독특한 동선이 만들어진다. 관람객들은 미술관 내부로 들어서면 곧바로 자연광이 쏟아지는 밝은 중앙 홀에 이르며, 중앙 홀에서 분산되어 각 전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관객이 선택한다.

이러한 관람의 동선은 전시장을 미로처럼 만든다. 설계자에 따르면 다른 크기의 공간과 혼란스런 동선으로 작품들은 독립적인 동시에 상호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포스트모던 건축의 실험적 공간구조로 현대미술관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실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처럼 규범에서 벗어난 미술관 건축은 일반인의 현대미술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작품들은 사조별, 양식별로 전시하기 힘들어 난해함이 느껴지며, 심지어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보다 미래의 다양한 미술은 기존의 공간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새로운 공간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곳 소장품은 창립자의 개인적 취향에서 시작된 미니멀 작품과 미디어 아트가 주를 이룬다. 칼 안드레, 도널드 저드, 백남준, 요셉 보이스 등과 그의 동시대 작가들이 중심이다. 그 가운데 상설 전시로 백남준의 〈하나의 초(One Candle, 1988)〉는 전시장 공간과 가장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하나의 촛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빛의 삼원색인 RGB색을 동시에 다방면으로 촛불에 투사하여 수 십 개의 RGB색의 촛불이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공간 연출로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서 투영된 촛불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관객의 참

20) MMK, 〈Project Supervisor's Report, Roland Burgard〉, 《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 am Main》, MMK, 1991, p. 93, p. 96. 참조

여와 호기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영상과 공간의 예술이다.

백남준과 같이 독립된 공간의 설치작품을 보여주는 작가로는 요셉 보이스가 있다. 대부분 독일 현대미술관에는 요셉 보이스의 작품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진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요셉 보이스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문화예술의 발전에 독일인의 정신적 지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받쳐주는 곳이 독일 전역에 퍼져있는 현대미술관이다. 보이스는 펠트와 기름 덩어리를 작품 소재로 사용하는데, 이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물질이며, 더 나아가 현대인의 절망과 방향을 치유하는 상징적 재료가 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았던 작가의 실존적 경험을 예술세계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주술적 성격이 강하다.<sup>21)</sup>

### 3) 쾰른 루트비히 미술관(Museum Ludwig)

쾰른의 루트비히 미술관 전신은 발라프 리하르츠 미술관이다. 1861년 개관된 이곳은 발라프(Franz Wallraf)가 전 생애를 통해 수집하였던 1,600여점의 회화, 40,000여점의 판화, 13,000여점의 도서를 기증하고, 이어서 하인리히 리하르츠가 미술관 건립을 위해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현대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후 루트비히 부부가 1969년 팝아트를 중심으로, 1906년에서 1930년 사이의 러시아 아방가르드컬렉션과 피카소의 작품 등 350여점을 기증하여 발라프 리하르츠의 현대미술전시관을 루트비히미술관으로 개명한다. 쾰른 대성당과 중앙역, 라인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루트비히미술관의 건물은 건축가 피터 부스만(Peter Busmann)이 설계하였으며, 1986년 재개관하면서 현대미술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 이후 루트비히 미술관은 <서양미술>, <여기로부터> 그리고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서구미술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중과의 호흡을 도모한다. 많은 이벤트와 전시를 관람객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며, 관객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쾰른 루트비히 현대미술관의 특성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미술관의 대중화이다. “미술관은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술관은 우리 모두의 소유인 동시에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이다.”<sup>22)</sup>라는 목표로 대중과의 교류와 소통을 우선하여 독일

21) Jean-Christophe Ammann, Christmut Präger, <Museum für Moderne Kunst and Ströher Collection>, 《Museum für Moderne Kunst und Sammlung Ströher》, Das Museum, 1991, p. 93, pp. 113~117. 참조



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성장한다.

초기 루트비히 미술관의 소장품은 20세기 초 독일표현주의 작품들과 에른스트 중심의 초현실주의 작품, 그리고 미국의 팝아트 부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컬렉션이었다. 그러나 점차 루트비히 미술관은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변화를 갖는다. 미디어 부분은 1972년에 비디오 작품수집가인 게리 슈(Gerry Schum)으로부터 작품을 대량 구입하면서 시작한다. 특히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품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미디어 작품이 소장된다.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소장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루트비히 미술관은 쾰른이라는 도시를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여유를 바탕으로 쾰른의 미술관과 미술학교는 미디어 아트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작가 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현대미술관이 학교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작가와 시민, 더 나아가 현대미술의 향방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좋은 예이다.

이러한 경우는 독일 서남부 슈투트가르트 현대미술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벤츠 자동차 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첨단화된 미술 전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980년대 중반에 재건축된 이곳은 구관과 신관으로 나누며, 신관은 국제 현상공모로 선발된 영국의 건축가 제임스 스티어링(James Stirling)이 설계했다. 이는 채색된 파이프 모양으로 이루어져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같은 외양으로 유명하다. 파이프 통로는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면서 전통미술관 아방가르드, 최첨단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시대순으로 감상할 수 있다.<sup>23)</sup>

### Ⅲ. 결 론

20세기 초 국가적 문예부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독일 현대

22) Museum Ludwig, <Collection of Museum Ludwig>, Museum Ludwig, 2004. 참조

23) Staatsgalerie Stuttgart, <Munch, Nolde, Beckmann... Private Treasures From Southern Germany>, <Brochure of Staatsgalerie Stuttgart>, Staatsgalerie Stuttgart, 2004. 참조

미술관은 한때, 내셔널리즘과 나치즘으로 위기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지역적 특성을 살린 현대미술관의 등장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미술 활동이 이루어진다. 안목이 있는 미술품 소장에서부터 단단한 기초 연구와 열린 공간으로 미술관 변화를 가장 먼저 추구하였던 곳이 독일 현대미술관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베를린과 뮌헨, 기타 서부 지역의 독일 현대미술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미술관은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규정하는 “문화재의 보호, 교육”이나 “수집, 보존, 전달 및 전시의 사회적 기관”을 뛰어 넘어 “국가 미술문화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생각해야 하며, 대중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삶과 일체”를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로 독일 현대미술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베를린의 ‘신국립미술관’이나 뮌헨의 ‘피나코텍 모던’, 뒤셀도르프의 ‘K20’ 처럼 현대미술의 뿌리가 되는 20세기 초의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연구, 전시하면서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대미술관은 국립이나 연방 정부가 중심되어 과거의 유산을 정리 보존하는 전통적이며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 이곳에 소장된 작품이나 전시 방향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작품이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이며, 요셉 보이스나 리히터 등 모더니즘 후반 독일 출신의 거장들이다.

이러한 국립 현대미술관은 때로 중복된 유명작가의 소장과 반복 전시로 관객의 시각을 획일화 시키거나 식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소위 ‘교과서 그림’이라 불리는 유명작가 작품이 지방의 중요 미술관 마다 상설 전시하여 시각의 획일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치 유행처럼 미술 작품이 등장하였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한 동안 팝 아트 유행으로 독일 현대미술관에서는 미국 팝 작가들은 세계적 거장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객의 판단과 선택이 아닌 미술관 관장과 큐레이터의 주관적 시각에 의해 대중은 교육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거장들 작품의 집중적 소장과 자국의 작가들 작품을 보여주고자 하는 독일 현대미술관은 민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를린의 신국립미술관이나 뮌헨의 피나코텍 모던, 그리고 뒤셀도르프 K20은 전통의 계승과 진보적 내셔널리즘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물질에서 벗어나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미술관으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독일 현대미술관의 두 번째 특징과 경향은 새로운 미술의 전개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다. 난해한 현대미술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열린 공간에 전시 하여 흥미와 참여,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미술관으로 베를린의 함브르크 반호프 미술관이나 뒤셀도르프의 K21, 쾰른의 루트비히미술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현대미술관 등을 들 수 있다. 이곳은 미술관 건축 양식부터 기존의 공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의 기차역을 개조하여 현대미술의 실험적 경향을 수용하고 있는 베를린의 함브르크 반호프 미술관이나 호수를 끼고 있는 K21 미술관, 시내 중심가의 포스트모던 건축의 프랑크푸르트 미술관, 고딕의 쾰른 대성당과 비교되는 미디어 아트 중심지로 부각되는 루트비히 미술관 등은 변화하는 시대적 특성에 맞추어 열린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 미술관은 시민들의 교육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도시의 특성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 미술학교 교육과 연결시킨 쾰른 경우 미디어 아트의 중심지로 변화를 유도하거나, 프랑크푸르트의 현대미술관은 모더니즘 이후의 다양한 변화를 세계적인 금융도시답게 경제적 활동과 연결시켜 나간다. 이러한 미술관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 미술과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미술관 중심의 창조적 문화예술이 탄생된다. 이는 분명 독일이나 미국 등 몇몇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경우도 현대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변화로 새로운 미술문화 창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mma Barker, 《Contemporary Cultures of Display》, Yale Univ Pr, 1999.
- Gudrun Inboden, 《Staatsgalerie-Contemporary Art》, Staatsgalerie Stuttgart, 1999.
- Irving Sandler, Les années soixante, Ed Carre, Paris, 1990.
- John Elderfield, 《MoMA in Berlin - Masterpieces MOMA》, Hatje Cantz Verlag, 2004.
- Jennifer Blessing, 《Robert Mapplethorpe and the Classical Tradition》, S. R. Guggenheim, 2004.
- Jean-Christophe Ammann, Christmut Präger, 《Museum für Moderne Kunst und Sammlung Ströher》, Das Museum, 1991.
- 다니엘 지로디, 「앙리 뷔이에」,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김혜경 역, 화산문화, 1996.
- \*Brochure, Press Release ;
- Bauhaus-Archiv Museum, 《The African Chair-A masterpiece》, Bauhaus-Archiv Museum, 2004.
- Hamburger Bahnhof Museum, 《Pergamonmuseum》, Hamburger Bahnhof Museum, 2004.
- Haus der Kunst, 《b&h becher》, 《Brochure of Haus der Kunst》, Haus der Kunst, 2004.
-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K20 Kunstsammlung am Grabbeplatz》, 《Brochure of K20, K21》,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2004.
- Lenbachhaus und Kunstbau, 《Brochure of Lenbachhaus》, Lenbachhaus und Kunstbau, 2004.
- Koln Museum Ludwig, 《Brochure of Museum Ludwig》, Museum Ludwig, 2004.
- Neue Nationalgalerie, 《Brochure of Neue Nationalgalerie》, Neue Nationalgalerie, 2004.

Munchen Pinakothek der Moderne, 《Brochure of Pinakothek der Moderne》,  
2002.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Brochure of Deutsche Guggenheim》,  
2004.

Staatsgalerie Stuttgart, 《Private Treasures From Southern Germany》,  
Stuttgart, 2004.

## ■ Abstract

### A study of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Germany

Yoo, Jae-Kil

This research is on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important cities of Germany based on the history of the modern art museum and its possessions. Especially, it is focusing on the modern art museums in the western Germany including Dusseldorf, Koln, and Frankfurt that have shown economic recovery from the Miracle of Rhine: the capital city of Germany, Berlin, as well as Munich, the second capital city of Germany. Here, it harmonizes with the tradition of the past and simultaneously, it spreads the concept and role of the new museum as a forerunner.

After the WWII, this is the most active place of supporting investment for art museums and author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Also, it represents Germany with its national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The modern art museums of Germany emphasize the mission that they exist for the people and the nation as well as creation of new art culture. These art museums working for national culture and art development do not simply collect and preserve arts. They induce active

involvement from the public and keep in mind of national objectives. Here, art museums become an educational setting for the people and a room for new art culture.

This research is on Germany modern art museum and it is composed of important 'public institutions' of Germany that critically influence the growth of world-renown authors.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Munchen and the western region became an important places centering around new Berlin modern art museum. They are the best places that show the national objectiv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lso, there are art museum educational curriculum and open space for the people by explaining exhibition plans and contents.

Furthermore,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of German modern art museums that are noteworthy. Firstly, there are Berlin's Neue Nationalgalerie, Munchen's Pinakothek der Moderne, and Dusseldorf's 'K20' (Kunstsammlung N-Westfalen K20) that are the roots of modern art. These modern art museums exhibit popular author's collection repeatedly. This has a tendency to standardize audiences' view or to make audiences bored. It is becoming more like a trend for art work to appear and disappear. Despite these problems, German modern art museums play a critical role for a new cultural art creation and for the national identity by attempting to show the works of domestic authors as well as an intensive collection of world-renown authors' works.

Secondly, there is a role as a new art museum to work together with people. It strives to continuously educate difficult modern arts, exhibits in an open space stimulating interest, participation, and conversations. From these roles,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or Dusseldorf's 'K21, Frankfurt Museum für Moderne Kunst, Köln Museum Ludwig are given new attention. Here,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s and provides experienc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spaces by showing the archi-

itecture style of the art museum.

In conclusion, German modern art museums attempt various changes by connecting to art education. With art museum activities, there forms a connection between arts and the lives of people, and from this, creative cultural art focused on the art museum borns. This is not only limited to Germany, the U.S., etc. We, too, should pay attention to new art culture creation from changes of role and function of modern art museums.

Keywords : 독일 현대미술관, 베를린, 뮌헨, 실험 공간, 참여와 교육, 정체성